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10월

선교편지 제 136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건축을 마치고 헌당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가 새롭게 느껴지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고스 지역의 학교들은 이미 개학을 하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시장이나 교회와 같은 공공 장소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팔라야 교회가 건축되면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꿈에 부풀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주요 선교 대상이었던 학생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된 선교 대상을 학생이 아닌 지역 마을 주민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흩어져 있는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시간을 피해 마을에 퍼져 있는 집들을 방문하여, 전도지와 마스크를 선물로 주고 아팔라야 교회를 소개하며 교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8개월동안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아팔라야 교회의 건축 과정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 거의 모두가 태생적으로 이곳의 국교인 카톨릭 교인이거나 이슬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때에 기꺼이 응하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마을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복된 일이라 생각하여, 매주 한번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교실에서 숙식을 하며 제 아내와 함께 마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8시30분에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아팔라야 예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팔라야 교회는 아직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고스 교회 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회 문 밖에서 벌써 낮이 익은 반가운 교인들 반갑게 맞이하고, 또한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이곳 교회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각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고, 어린 아이와 같이 서서히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루고, 각 사람을 연결하고 세워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엡 1:23)**









코로나로 인하여 이곳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미터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어린이 및 학생, 그리고 노약자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도 규정에 따라 의자를 배치하여 50여명 정도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친교 음식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 가면, 사회적 거리나 마스크 착용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왕래가 많고, 아이들도 몰려 다니며 요란스럽게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와 교회 각종 모임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지역 선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디고스 예일교회의 교인들은 첫째 - 유초등부 학생과 고등학생들, 둘째 - 아직 21세가 안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 셋째 -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주부들과 노약자들로 나누어 집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거의 7개월 동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주중에 별도로 만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 어렵게 뿌리내린 선교 사역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인터넷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이라, 온라인으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닌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전보다 더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주 유초등부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위하여 두 종류의 성경공부를 비데오로 제작하여, 부모들과 자녀들이 집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을 쓸 줄 아는 모든 학생들은 매일 성경 1장씩 쓰도록 하고, 매주 시상을 하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으로 인하여 조금 과열된 면도 없지 않으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열의로 매주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부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구역예배와 같은 형태로 마을에서 아내의 인도로 매주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안전을 주님께 맡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여성인 까닭에 교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친교 음식도 만들어서 나누고, 마음문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석하지 않은 남편들에 대하여 이야기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림이 한층 어려워진 교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며, 교회의 필요를 아무 말없이 채우는 보석 같은 교우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남자 집사님들의 요청으로 토요일 저녁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만 향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 보았나이다 (시 63:2)**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